

10년간 소비자물가 17% 올랐다

호남통계청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

광주 16.7%·전남 17.3% ↑
최근 2년간 상승이 절반 차지

최근 10년간 광주·전남 소비자물가가 17% 안팎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항목에서 두자릿 수 이상 올랐는데 특히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이 겹친 최근 2년간 오름세가 가팔랐다.

28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8(기준 2020년=100)으로 10년전(2012년) 대비 16.7% 상승했다.

이는 전국 상승률(16.9%)에 비해 0.3%p 낮

은 수치며 7개 특·광역시 중에서도 대전(14.8%), 울산(15.3%)에 이어 세번째로 낮았다.

특히, 연평균 상승률은 1.6%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와 국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2년간 상승률이 7.8%(2021년 2.6%·22년 5.1%)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가계의 체감물가를 나타낸 생활물가지수는 16.6%(지수 109.98) 상승했다. 식품이 10년새 29.6% 올랐는데 껌(114.8%), 수입쇠고기(89.5%), 오이(86.6%)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출목적별로 통신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 주류 및 담배가 66.0%로 가장 크게 올랐고 ▲식품 및 비주류음료(31.1%) ▲음식 및 숙박·기타 상품 및 서비스(29.5%) ▲

의류 및 신발(19.0%) 순으로 이어졌다.

주요 부분별로 주택임차료(전·월세)는 11.1%, 도로 여객수송 관련 품목 지수는 택시 36.0%, 시외버스 18.4%, 시내버스 12.5% 상승률을 보였다. 학원비는 중·고·초등생 순서로 각각 34.2%·29.9%·17.3%씩 상승했다.

같은기간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2년 대비 17.3%(지수 108.43) 올라 전국 상승률과 동일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10.14로 10년새 17.3% 상승했고 식품은 31.0%, 식품이외는 10.2% 각각 올랐다. 식품 중 오징어(106.8%), 수입쇠고기(70.0%), 무(68.6%), 국산쇠고기(65.9%) 등은 상승한 반면, 파(-8.9%), 사과(-3.3%)는 하락했다.

신선어개와 채소, 과실이 각각 26.9%·28.8%·20.5%씩 오르며 신선식품지수는 총 26.3% 등락율을 나타냈다. /홍승현 기자

보해양조, '흑임자순희' 막걸리 출시

전국 홈플러스 매장 단독 판매

보해양조가 디저트 카페 '설빙'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설빙 흑임자순희' 막걸리를 출시했다.

지난해 4월 출시 2주만에 홈플러스 막걸리 카테고리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설빙 인절미순희'의 후속 제품이다.

흑임자순희 막걸리는 설빙의 웰빙빙수 3종 중 하나인 '흑임자찰떡설빙'의 핵심 원료인 흑임자와 100% 우리쌀 순희 막걸리를 블렌딩해 개발했다.

순희는 막걸리 특유의 텁텁함이 적어 깔끔함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여기에 구수한 흑임자가 더해져 한층 더 풍부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발효시키는 보해양조의 파스퇴르 공법을 이용해 12개월까지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지난해 설빙과 협업해 설빙 인절미순희

막걸리를 선보였던 보해양조는 단순히 소비자의 호기심을 끄는 상품을 넘어서는 특별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설빙과 레시피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보해양조의 기술력에 설빙 인절미 빙수의 특성을 충분히 담아낸 설빙 인절미 순희 막걸리가 탄생했다.

전통주 커뮤니티 '백술닷컴'이 발표한 2022 전통주 소비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주종별 판매 순위 1위가 막걸리로 나타났다.

설빙 흑임자순희는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트렌드를 대표하는 재료인 흑임자를 더해 조부모 세대의 감성과 취향을 즐기려는 MZ들의 입맛을 또 한번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빙 흑임자순희는 전국 홈플러스 135개 매장에서 단독 판매된다. 론칭 기념 행사로 2개 구매 시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연수 기자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애로사항 청취

하남산단 입주업체 간담회

광주국세청은 28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초청으로 관리공단 2층 소회의실에서 입주기업 대표 등 10여 명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운영성 광주국세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입주기업 대표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또 경제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부임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 정을 펼쳐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제도 문의 ▲해외투자 관련 세금문제와 유의할 사항 안내 요청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사전심사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다양한



광주국세청은 28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소회의실에서 입주기업 대표 등 10여 명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국세청 제공

세무컨설팅을 제공해 납세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유용한 세무정보와 유의할 사항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초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석 하남산단관리공단 이사장은 "광주국세청이 현장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광주테크노파크-중국 요녕성 업무협약

과학기술·인재 등 자원 교류

광주테크노파크는 중국 요녕성 심무개혁혁신시범구 관리위원회와 광주기업 유치 및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광주의 주력산업인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산업, 스마트홈 부품산업, 생체의료 소재·부품산업과 심무시범구의 6대 산업인 인공지능, 친환경 신에너지 등 산업의 과학기술과 인재 등의 자원을 교류한다.

또한 이후 중국 요녕성 진출을 희망하는 광주

기업 대상으로 심무개혁혁신시범구에 적극 초청해 현지답사를 진행키로 했다.

더불어, 요녕성 심무개혁혁신시범구 관리위원회는 살균수 제조장치 등을 제조하는 광주 ㈜재이디와 심무개혁혁신시범구 투자유치 및 현지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테크노파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지역 우수기업의 동북아시아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후로도 실질적인 수출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중국 요녕성 심무개혁혁신시범구 관리위원회와 광주기업 유치 및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